

코스피, 삼전·하나 호실적에 5,200 돌파 마감…코스닥도 2.7%↑

널뛰기 장세 속 '개미의 힘'…기관·외인 '팔자' 속 1조6천억원 순매수

기관 이날도 코스닥서 2조원 폭풍 쇼핑…개인은 2조1천억 순매도

코스닥, 올해 수익률 25.8%…코스피 제치고 세계 증시 1위 등극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호실적에 힘입어 코스피가 29일 사상 처음으로 5,200선을 넘은 채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0.44포인트(0.98%) 오른 5,221.25로 거래를 종료했다.

지수는 72.61포인트(1.40%) 오른 5,243.42로 출발해 개장 직후 5,252.61까지 치솟았으나 곧 급락하기 시작해 오전 한때 5,073.12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에는 반대로 급격히 하락분을 만회하더니 오후 들어 5,200선을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3.8원 오른 1,426.3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이 흘로 1조6천17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외국인은 1조5천97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고, 기관도 1천502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은 코스피 200선 물시장에서도 4천895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개인과 기관은 1천410억원과 3천628억원 매수 우위다. 간밤 뉴욕증시는 주요 비테크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며 3대 지수가 호조세를 보였다. 스텠 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 7천100원(-3.26%)까지 내렸다가, 1.05% 내린 16만700원까지 낙폭을 좁힌 채 거래를 마쳤다.

나스达종합지수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각각 0.17%, 0.02% 올랐다. 간밤 열린 FOMC 회의는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금리 결정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연준의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일 것이라는 것은 누구의 기본 전망도 아니다"라고 말해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특히 이날 국내 증시 개장 직전에는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내놓았다.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43조6천11억원으로 전년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매출은 333조6천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연간 매출은 역대 최대 기록이고 영업이익은 2018년(58조8천 900억원), 2017년(53조6천500억원), 2021년(51조6천300억원) 이후 역대 4위 기록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 출발한 국내 증시

에서 삼성전자는 장 초반 25.9% 급등한 16만6천60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곧 반락해 한때 15만7천100원(-3.26%)까지 내렸다가, 1.05% 내린 16만700원까지 낙폭을 좁힌 채 거래를 마쳤다.

전날 장 마감 후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였으나 최종적으로는 2.38% 오른 86만1천원에 매매를 종료했다.

재료 소말에 따른 '셀온'(sell-on·고점매도) 현상이 나타나 주가가 강하게 밀렸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이 제한되거나 반등에 성공한 모양새다. 여타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등락이 엇갈렸다.

현대차(7.21%), SK스퀘어(5.36%), 기아(3.47%), NAVER(3.42%), 두산에너빌리티(2.17%) 등이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3.36%), 셀트리온(-1.83%), 삼성바이오로직스(-0.84%) 등이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국내 증시의 역대급 '불장'에 수혜 기대가 커지면서 증권(9.99%)이 급등했고, 기계·장비(3.00%), 운송·창고(2.98%), 금융(2.57%), 전기·가스(2.56%), 운송장비·부품(2.39%) 등도 강세였다.

제약(-0.93%), 전기·전자(-0.04%)는 약세를 나타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30.89포인트(2.73%) 급등한 1,164.41로 마감했다. 지수는 19.91포인트(1.76%) 오른 1,153.43으로 개장한 이후 한때 1,108.43까지 밀렸으나 이후 빠르게 하락분을 회한 뒤 상승세로 전환했다.

연일 이어진 불장에 코스닥의 연초 이후 상승률은 이날 종가 기준 25.8%로 코스피(23.9%)를 제치고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 1위로 올라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2조421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기관은 지난 23일부터 5거래일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 대거 순매수를 진행, 이날까지도 포함 9조6천억원가량을 순매수했다.

외국인도 이날 2천256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흘로 2조1천280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행사에서는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회사의 비전과 가치,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신입사원들은 2월부터 각 현장과 협업 부서에 배치돼 대우건설의 일원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보현 대표이사는 신입사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지난 5일 신년사를 통해 발표한 올해의 경영방침인

대우건설, 신입사원과 함께하는 한마음의 장 개최

신입사원과의 소통을 위해 김보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 임원진이 참석



Connect를 세 가지 핵심 화두로 한다

'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단순히 공기를 맞추고 최소 품질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안전, 품질, 연결 전 영역에서 기본을 탄탄히 하는 회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Safety(안전) 부분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며, 신입사원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 과정과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2025년을 지난 2026년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로, 신입사원들에게도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대우건설의 미래가 무척 기대된다"라고 덕담을 남겼다.

심귀영 기자

CJ제일제당, 비비고 생선구이 올해도 '대박' 예감

'비비고 연어 스테이크' 출시 초반부터 높은 인기… 2월부터 오프라인 판매 본격 확대



의 부담도 줄었다. 트레이에 담겨있어 별도의 손질이나 조리 과정 없이 전자레인지에 약 1분 데우기만 하면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다.

단백질 11g과 오메기3 지방(EPA, DHA)을 함유해 영양 보충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단백 제품으로 설계된 점도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주로 밥 반찬으로 먹는 생선구이와 달리 생선 스테이크 자체로 즐기거나 식단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헬스앤팠너스(H&W) 트렌드까지 적극 반영한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

같은 인기에 힘입어 '비비고 연어 스테이크'는 오는 2월부터 판매 채널을 본격 확대한다. 그동안 CJ 더마켓 등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운영해온 것에서 더 나아가, 할인점과 슈퍼 등 오프라인에서도 순차적으로 판매를 확대하며 소비자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2019년 '고등어구이'·'삼치구이'를 시작으로 라인업을 꾸준히 확대하며 성장해 왔다.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조리 방식과 패키징을 최적화한 것이 특징이며, 최근에는 자체개발 앰블럼 '뉴트리체크(Nutricheck)'를 도입해 고객이 한눈에 주요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이러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비비고 생선구이 제품군은 전년 대비 35% 성장, 역대 최대 연 매출을 달성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최근 인기몰이를 타고 있는 '비비고 연어 스테이크'가 2월부터 오프라인에서도 소비자들을 만나다"며, "앞으로도 헬스앤팠너스(H&W) 트렌드에 맞춰 맛과 영양, 편의성을 모두 갖춘 생선구이 제품을 계속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생선구이'가 헬스앤팠너스(H&W) 트렌드와 맞물려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연어 스테이크'가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약 10만 개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집에서 생선을 직접 구워 먹기 번거로운 불편을 줄이고, 건강과 식단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헬스앤팠너스(H&W) 트렌드까지 적극 반영한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달 선보인 '비비고 연어 스테이크'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레모즙으로 연어 고유의 담백한 맛을 살리면서 허브와 흑후추를 더해 비린맛을 낮춘 제품이다. 과열증기 오븐으로 구워 족족한 식감을 구현했으며, 큰 뼈부터 잔가시까지 수작업으로 꼼꼼하게 제거한 순살 형태로 출시돼 먹는 과정

롯데칠성음료,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업무협약' 체결

6개 민·관 협력 국립공원 폐자원 수거부터 재생산에 이르는 자원순환 모델 구축



안정적 정착에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회수된 폐트병이 다시 식품의 용기로 제작되는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 시스템을 구현한 데 의미가 크다.

롯데칠성음료는 국립공원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선별·가공해 만든 고품질의 재생원료가 함유된 재생원료페트 '생수'를 생산, 판매하며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한, 국립공원에 생수를 특별가로 공급해 탐방객들에게 자원순환의 가치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의 결과로 연간 약 44만 개(6.6톤) 투명페트병을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재탄생 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명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여 쓰레기 발생과 소각 및 매립으로 인한 탄소 발생량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어촌 특성화고 AI 교육·장학 사업' 추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용, 5개 고교 대상 AI교육 시행으로 교육격차 완화

28일 LH, 농어촌 특성화고 5개 고교와 AI 교육·장학 지원 협약 체결



LH는 각 학교에 ▲AI 프로그래밍 기초 등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AI·로봇 교육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 구축 ▲장학생 선발 및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박영남 LH 스마트주택기술처장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AI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LH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귀영 기자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통해 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확대 나서

햇살론' 신규(특례/일반) 손님 대상, 대출 잔액의 2% 매월 캐시백(하나머니)

최근 서금원 보증요율 인하 + 은행 이자율 감면 → 금융부담 경감 배가(倍加) 기대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지난 8일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표된 포용금융 확대 방안 중 하나로, 햇살론 특례보증과 일반보증 신규 손님 대상으로 신규일로부터 1년 동안 대출 잔액의 2% 수준을 월 환산하여 매월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햇살론 손님이 대출원금 1천만원, 대출금리 12.5%인 경우, 이자납부 후 다음 달 세



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포용금융상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보다 낮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포용금융 신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10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2조원, 서민·취약계층 대상 4조원 등 총 16조원의 포용금융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서민·취약계층에 대하여 대표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우대금리 적용, 원리금 감면 등 자체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승원 기자

번체 영업일에 16,667원(1천만원 X2%÷12개월)을 1년 동안 매월 환급돼 1년간 총 20만원 상당액을 하나머니로 캐시백 받을 수 있다. 햇살론은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으로서, 해당 금리는 서민금

융진흥원 보증료율(최대 6.5%)과 은행의 이자율(6%)을 합해 결정된다. 이번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시행을 통해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율을 인하한 것에 더해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율을 추가 감면함으로써 서

이승원 기자